

## 2017년 화장품 수출 동향 분석

산업통계팀  
신민선

### I 개요

한국의 화장품은 한류 영향의 초기 단계를 넘어 K-뷰티의 접점을 지나 전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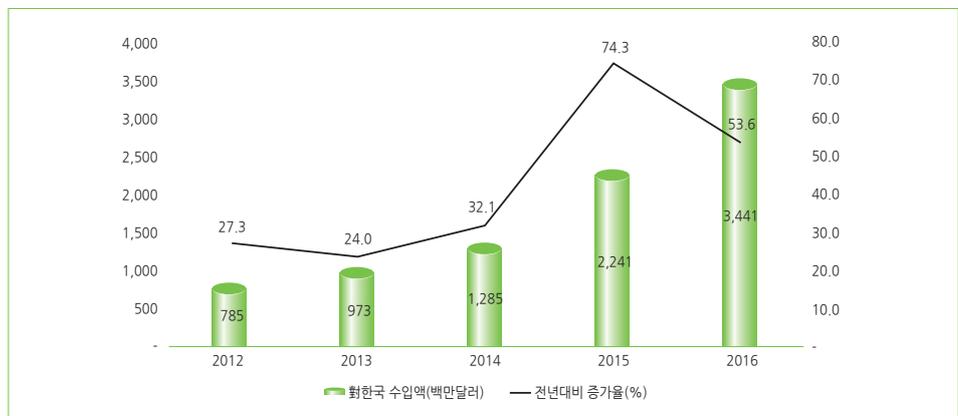
2017년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한 50억 달러로 무역수지 4년연속 흑자를 달성함

- 중화권으로의 수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반면, CIS지역 및 유럽의 수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수출 다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①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발표한 '2017년 세계 혁신 현황 보고서 : 진보를 향한 멈추지 않는 노력(The Relentless Desire to Advance)'<sup>1)</sup>에서 한국의 세계시장 혁신 선도 9개 분야<sup>2)</sup>에 화장품이 선정됨

  - 스킨케어 등 화장품 시장은 개발(혁신)이 지속될수록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임을 설명하고 있음
  - 2016년 전 세계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국내 업체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2015년 1위 랭크)'이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높은 성장세가 더욱 기대됨
- ② 현재 한국의 화장품은 한류 영향의 초기 단계를 넘어 K-뷰티의 접점을 지나 전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크게 발전함

  - 전 세계 대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장품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4억 달러로 2012년(8억 달러)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주: 1) UN Comtrade Database의 129개국으로 분석 2) 국내 화장품 상품분류(HS CODE) 6단위 16개 품목에 해당하는 수출액 기준임  
자료: UN Comtrade Database,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그림 1] 대한국 화장품 수입 현황(2012~2016)

- 1) 전 세계 특허 활동 및 학술 문헌 발간물을 포함한 글로벌 지적 재산 데이터를 분석해 각 분야별 전 세계 혁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
- 2) 한국의 세계시장 혁신 선도 9개 분야는 반도체, 통신, 자동차, 생명공학, 가전제품, 의료기기, 항공우주, 정보통신 등이 있음

- 보고는 2017년 화장품 수출입현황을 지역별, 국가별, 유형군별로 분석하여 수출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II 자료원 및 분석방법

- 최근 5년간(2013~2017)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TRASS)를 기초로 HS CODE 10단위 화장품산업 31개 품목<sup>3)</sup>에 대하여 분석함
  - 화장품의 유형별 분류는 화장품법을 기준으로 기초 화장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두발 염색용 제품류 포함), 면도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포함, 방향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영·유아용 제품류, 체취방지용 제품류 등 11개 유형으로 구분함
  - 또한 2017년 화장품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의약외품에 분류되었던 일부 기능성화장품이 확대 추가되어 탈모제, 약용비누 품목을 분석에 포함함<sup>4)</sup>
- 2017년 화장품 수출입 실적을 지역별(지역 및 경제권별), 국가별, 화장품 유형별로 분석함
  - 지역 및 경제권별 분류는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분류를 이용함

〈표 1〉 HS코드 및 지역 구분

구분		주요내용
유형별	기초화장용 제품류	3304991000, 3307909000
	인체세정용 제품류	3304999000, 3401300000, 3401119000
	색조화장용 제품류	3304992000, 3304101000, 3304109000, 3304911000, 3304919000
	눈화장용 제품류	3304209000, 3304201000
유형별	두발용 제품류	3305100000, 3305909000, 3305901000, 3305200000, 3305902000, 3305300000
	방향용 제품류	3303001000, 3303002000, 3307902000
	목욕용 제품류	3307302000, 3307301000
	면도용 제품류	3307109000, 3307101000
	손발톱용 제품류	3304309000, 3304301000
	영·유아용 제품류	3304993000
	체취방지용 제품류	3307200000
	기능성화장품 제품류	3307901000, 3401111000

3) HS CODE 기준으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부 품목에 대한 통계가 과대 계상될 수 있음

4) 2017년 기능성화장품의 개정 내용은 기존 기능성화장품 3종(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에 염모제, 제모제, 탈염제, 탈모완화제,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개선, 여드름성 피부 완화 등 7종을 확대 추가함

구분	주요내용	
지역별	Asia/Pacific	중국,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North America	미국, 캐나다
	Europe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동·서유럽 지역 국가
	Middle East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바레인 등 중동지역 국가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등 아프리카 지역 국가
	Latin America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지역 국가
	Others	마셜제도, 남극 등 기타 지역 국가
경제권별	ASEAN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CIS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
	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

### III 분석내용

#### 1. 화장품 수출입 현황

- 2017년 화장품 수출은 전년대비 18.3% 증가한 50억 달러, 수입은 6.7% 증가한 16억 달러로 무역수지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함
  - 화장품 수출은 2014년 4.8억 달러 흑자전환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대비 약 4배 증가함
  - ※ 화장품 무역수지(백만 달러) : △53('13년) → 484('14년) → 1,509('15년) → 2,734('16년) → 3,404('17년)

〈표2〉 보건산업 및 화장품 교역 현황(2013-2017)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YoY	CAGR ('13-'17)	
보건산업	수출	5,717	6,875	8,581	10,223	12,186	19.2	20.8
	수입	8,733	9,477	9,196	10,114	10,600	4.8	5.0
	교역액	14,450	16,352	17,777	20,337	22,786	12.0	12.1
	무역수지	-3,016	-2,601	-614	109	1,587	-	-
화장품	수출	1,243	1,895	2,931	4,194	4,960	18.3	41.3
	수입	1,296	1,411	1,421	1,459	1,557	6.7	4.7
	교역액	2,538	3,306	4,352	5,653	6,517	15.3	26.6
	무역수지	-53	484	1,509	2,734	3,404	-	-

주: 1) 보건산업의 범위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을 포함함  
 2) YoY는 전년대비증감율, CAGR은 최근 5년(2013~17년)연평균 성장률을 의미함  
 3) 교역액 = 수출+수입, 무역수지 = 수출-수입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그림 2] 화장품 수출입 현황(2013~2017)

## 2. 지역별 수출 현황

- 2017년 지역별 화장품 수출은 아시아/태평양 41억 달러(83.5%)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북미 5억 달러(9.6%), 유럽 3억 달러(5.9%), 중동/아프리카 0.4억 달러(0.8%), 중남미/기타 0.1억 달러(0.3%) 등 순으로 나타남
  - 아시아/태평양 수출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연평균 성장률(2013~17)로 미루어볼 때 유럽(44.7%), 북미(42.5%) 지역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3] 지역별 수출 현황(2013-2017)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13-'17)	
						비중	(%)
Asia/Pacific	1,035 (-)	1,604 (54.9)	2,526 (57.5)	3,603 (42.6)	4,143 (15.0)	83.5	41.4
North America	115 (-)	167 (45.2)	252 (50.4)	367 (45.6)	476 (29.9)	9.6	42.5
Europe	66 (-)	93 (40.1)	117 (25.7)	182 (56.2)	290 (59.4)	5.9	44.7
Middle East/Africa	21 (-)	25 (21.0)	28 (11.2)	31 (12.6)	38 (21.6)	0.8	16.5
Latin America/Others	5 (-)	6 (15.1)	8 (31.2)	10 (29.5)	13 (25.7)	0.3	25.2
합계	1,243 (-)	1,895 (52.5)	2,931 (54.7)	4,194 (43.1)	4,960 (18.3)	100.0	41.3

주: (-)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2017년 유럽 지역으로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59.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4년부터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아시아/태평양은 타 지역에 비해 수출 증가율(15.0%)이 다소 둔화된 경향임
  - 국내 화장품의 선진화된 공법으로 기존 아시아 위주의 수출에서 화장품 최대 시장인 유럽으로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림 3] 지역별 수출 증가율 비교 (2015~2017)

### 3. 경제권별 수출 현황

- 경제권별로 ASEAN 수출이 전년 대비 33.9% 증가한 5.4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NAFTA 4.8억 달러(30.3%), CIS 1.3억 달러(87.5%) 순으로 나타남
  - ASEAN 지역 소비자들은 미(美)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여전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신뢰가 큼. 특히 베트남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이 약 2배 가까이 크게 증가함
  - NAFTA 지역은 최근 한국 화장품업체들이 미국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편집숍(세포라 등)에 입점하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CIS 지역은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 87.5%로 가장 크게 증가함. 최근 CIS지역은 정부 주도 탈유류화 및 신동방정책 추진에 따라 아시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미용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음

<표4> 경제권별 수출 현황 (2013-2017)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13-'17)	
						비중	(%)
ASEAN	230 (-)	263 (14.4)	308 (17.4)	406 (31.6)	544 (33.9)	11.0	24.0
태국	80	88	94	119	152	3.1	17.3
베트남	38	44	54	72	141	2.8	38.4
싱가포르	41	48	66	94	104	2.1	26.1
CIS	30 (-)	48 (60.6)	51 (7.0)	67 (30.9)	126 (87.5)	2.5	43.3
러시아	24	38	36	48	97	2.0	42.0
카자흐스탄	3	6	11	9	12	0.2	36.9
우크라이나	1	2	2	4	7	0.1	66.2
NAFTA	117 (-)	168 (44.4)	254 (50.7)	370 (45.8)	482 (30.3)	9.7	42.6
미국	108	156	241	350	450	9.1	43.0
캐나다	8	11	11	16	26	0.5	36.2
멕시코	1	1	2	3	6	0.1	44.9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CAGR ('13-'17)	
						비중	(%)
전체 수출	1,243 (-)	1,895 (52.5)	2,931 (54.7)	4,194 (43.1)	4,960 (18.3)	100.0	41.3

주: 1) ASEAN(10개국), CIS(11개국), NAFTA(3개국) 대상이며, 개별 국가별로는 수출 상위 3개국만 나타냄  
 2) ( )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4. 국가별 수출 현황

- 국가별 수출은 중국(19억 달러)과 홍콩(12억 달러)이 여전히 수출 1,2위를 기록, 이어서 미국 5억 달러, 일본 2억 달러 순으로 수출 규모가 큼
  - 2017년 중국과의 정치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율이 23.0%로 선전하였으나, 홍콩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1.8% 감소하며 다소 둔화된 양상을 보임
- 수출 상위 20개국 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러시아(101.3%↑), 폴란드(100.9%↑), 베트남(96.6%↑)으로 중화권 이외의 국가가 다수 포함됨
  - 특히, 폴란드를 포함한 영국(91.9%↑), 독일(71.9%↑), 프랑스(40.1%↑) 등 유럽지역에서 한국산 화장품의 인지도가 개선됨에 따라 선진시장으로 수출 활성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표5〉 국가별 수출 현황(2013-2017)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YoY		CAGR ('13-'17)
							비중	(%)	
1	중국	305	595	1,186	1,577	1,939	39.1	23.0	58.8
2	홍콩	215	411	688	1,245	1,222	24.6	-1.8	54.3
3	미국	108	156	241	350	450	9.1	28.4	43.0
4	일본	152	145	138	183	226	4.6	23.5	10.5
5	대만	95	126	140	136	155	3.1	13.6	13.0
6	태국	80	88	94	119	152	3.1	28.0	17.3
7	베트남	38	44	54	72	141	2.8	96.6	38.4
8	싱가포르	41	48	66	94	104	2.1	11.2	26.1
9	러시아	24	38	36	48	97	2.0	101.3	42.0
10	말레이시아	40	46	49	61	67	1.4	9.9	13.7
11	프랑스	4	6	14	33	46	0.9	40.1	84.7
12	필리핀	11	12	13	23	31	0.6	37.5	31.0
13	캐나다	8	11	11	16	26	0.5	62.4	36.2
14	호주	15	30	32	25	26	0.5	4.8	14.2
15	인도네시아	10	13	13	15	24	0.5	60.8	23.4
16	영국	10	7	9	12	24	0.5	91.9	24.8
17	아랍에미리트연합	8	8	8	10	14	0.3	44.1	14.2
18	독일	4	8	9	8	14	0.3	71.9	37.9
19	이탈리아	0	1	5	15	14	0.3	-10.1	145.4
20	폴란드	2	3	4	7	13	0.3	100.9	55.9
합계(A)		1,172	1,796	2,810	4,049	4,787	96.5	18.2	42.2
전체 수출액(B)		1,243	1,895	2,931	4,194	4,960	100.0	18.3	41.3
비중(A/B×100)		94.3	94.8	95.9	96.6	96.5	-	-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5. 품목별 수출 현황

- ◎ 2017년 가장 많이 수출된 화장품 유형은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지난해보다 18.5% 증가한 20억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이어서 기타 인체세정용 제품류(12억 달러), 마스크팩 등을 포함하는 기타 기초화장용 제품류(7억 달러), 메이크업용 제품류(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을 가진 한국산 제품류의 인기로 향수, 립스틱 제품류가 각각 전년대비 155.7%, 102.6%로 크게 증가함

〈표6〉 화장품 유형별 수출 현황(2013-2017)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중	YoY	CAGR ('13-'17)
2	기타(인체세정용)	293	464	777	1,144	1,228	24.8	7.3	43.0
3	기타(기초화장용)	66	102	198	395	693	14.0	75.4	79.9
4	메이크업용제품류	121	148	244	342	372	7.5	8.8	32.5
5	기타(눈화장용)	43	65	96	121	120	2.4	-1.4	29.0
6	샴푸	40	62	97	120	118	2.4	-1.9	30.8
7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조제품	16	27	69	97	89	1.8	-7.9	54.2
8	기타(두발용)	42	54	64	82	88	1.8	6.9	20.1
9	립스틱	9	18	19	31	64	1.3	102.6	64.7
10	기타(색조화장용)	11	16	28	55	62	1.3	13.2	53.4
11	페이스파우더	15	20	23	25	24	0.5	-3.9	12.5
12	아이샤도	7	10	7	14	21	0.4	44.9	30.6
13	향수	5	5	8	6	16	0.3	155.7	30.8
14	기타(인체세정용)	11	21	20	15	16	0.3	2.5	8.0
15	그밖의목욕용제품류	5	9	13	17	14	0.3	-18.3	28.8
16	헤어린스	7	9	10	13	12	0.2	-10.4	15.6
17	기타(손발톱용)	9	9	6	6	8	0.2	38.1	-1.6
18	네일애나멜	13	8	10	8	8	0.2	-5.7	-11.4
19	기타(색조화장용)	3	4	5	6	6	0.1	1.9	16.5
20	어린이용제품류	1	1	1	4	4	0.1	2.7	40.0
합계(A)		1,155	1,787	2,815	4,067	4,824	97.2	18.6	43.0
전체 수출액(B)		1,243	1,895	2,931	4,194	4,960	100.0	18.3	41.3
비중(A/B×100)		92.9	94.3	96.1	97.0	97.2	-	-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가공

## IV 결론 및 시사점

- ◎ 2017년 화장품 수출은 전년대비 18.3% 증가한 50억 달러, 수입은 6.7% 증가한 16억 달러로 무역수지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함
  - 화장품 수출은 2014년 4.8억 달러 흑자전환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대비 약 4배 증가함
- ◎ 2017년 지역별 화장품 수출은 아시아/태평양 41억 달러(83.5%)로 가장 많고, 이어서 북미 5억 달러(9.6%), 유럽 3억 달러(5.9%), 중동/아프리카 0.4억 달러(0.8%), 중남미/기타 0.1억 달러(0.3%) 등 순으로 나타남
  - 아시아/태평양 수출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연평균 성장률(2013~17)로 미루어볼 때 유럽(44.7%), 북미(42.5%) 지역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2017년 유럽 지역으로의 전년대비 수출 증가율이 59.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4년부터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해오던 아시아/태평양은 타 지역에 비해 수출 증가율(15.0%)이 다소 둔화된 경향임
- ◎ 경제권별로 ASEAN 수출이 전년 대비 33.9% 증가한 5.4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NAFTA 4.8억 달러(30.3%), CIS 1.3억 달러(87.5%) 순으로 나타남
- ◎ 국가별 수출에 있어 중국(19억 달러)과 홍콩(12억 달러)이 여전히 수출 1,2위를 기록, 이어서 미국 5억 달러(28.4%↑), 일본 2억 달러(23.5%↑) 순으로 수출 규모가 큼
- ◎ 수출 상위 20개국 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러시아(101.3% 증가), 폴란드(100.9% 증가), 베트남(96.6% 증가)으로 중화권 이외의 국가가 다수 포함됨
- ◎ 2017년 가장 많이 수출된 화장품 유형은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지난해보다 18.5% 증가한 20억 달러가 수출되었으며, 이어서 기타 인체세정용 제품류(12억 달러), 마스크팩 등을 포함하는 기타 기초화장용 제품류(7억 달러), 메이크업용 제품류(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 ◎ 전반적으로 화장품 수출은 중화권으로의 수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반면, CIS지역 및 유럽의 수출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출 다변화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화장품 업계에서는 높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수출 전략이 필요하며, 수출 잠재력이 있는 국가를 발굴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집필자 : 산업통계팀 신민선
- ◎ 문의 : 043-713-8527
-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KHISS**  
 보건산업통계시스템  
[www.khiss.go.kr](http://www.khiss.go.kr)